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충담사가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은 까닭은?

1. 기파랑을 위한 헌가

신라의 향가(鄕歌)는 '시골 노래'가 아니라 '나라의 노래' [國歌]였다. 때문에 향가 속에는 당대의 시대상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신라인들은 오래 전부터 향가를 즐겨왔다. 향가는 노래 중의 노래이자 가사 중의 가사[詞體]였다. 향가를 즐기는 이들이나 향가를 짓는 이들은 당시 최고의 문화인들이었다. 향가의 작자들은 대체적으로 왕?승려?화랑?여류?무명씨 등 여러 계층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현전하는 신라 향가의 작자들은 대부분 화랑과 승려들이었다. 충담사와 월명사는 승려이자 화랑으로 짐작되며, 또 월명사와 용천사 등은 승려이자 주술사로 추정된다. 반면 「안민가」를 지어 바친 충담사의 경우처럼 설화와 함께 재구성된 가상인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삼국유사」 소제 14편의 향가 중에는 경덕왕에 활동한 당대의 풍류 개개인 월명사와 충담사 및 희명에 의해 지어진 다섯 편의 향가가 들어있다. 충담사를 가상인물로 보는 이들과 달리 경덕왕과 대면한 실재인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삼국유사」 「기이」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는 그의 실존적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목에는 「찬기파랑가」와 「안민가」 두 편의 향가와 표훈대덕의 신동력 그리고 경덕왕대의 시대적 상황이 밀도 있게 담겨 있다.

경덕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 되던 해에 오악(五嶽)과 삼산(三山)의 신(神)들이 때때로 궁전 뜰에 나타나 대왕을 모시고 하였다. 3월 3일 날에 왕은 반월성의 귀정문(歸正門) 누각에 올라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누가 길에 나가 좋은 옷을 차려 입은 스님[禪福僧]을 모셔올 수 있겠느냐? 때마침 점잖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노닐 듯 지나가는 한 대덕이 지나가는지라 신하들이 모셔다 왕을 뵈게 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좋은 옷을 입은 스님이 아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냈다. 다시 한 스님이 해진 장삼을 걸치고 앵통(櫻筒, 혹은 삼태기)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여 누각으로 맞아들였다. 앵통 속을 보니 차 달이는 기구가 가득 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대표적인 차인(茶人)이기도 했다.

왕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충담(忠談)이라 하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 남산 삼화령(三花嶺) 티룩세존께 공양하는데, 오늘도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과인에게도 한 잔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곧 차를 달여 드리니 차맛이 특이하고 그릇에서도 특이한 향기가 풍겼다. 왕이 말하였다. “집이 들건대 일찍이 대사가 기파랑(耆婆郎)을 찬미한 사뇌가(詞腦歌)를 지었다는데, 그 뜻이 매우 고상하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짐을 위하여 「안민가」(安民歌)를 지어보게 나.” 충담은 곧 왕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이 가상히 여겨 왕사(王師)로 봉하려 했으나 그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2. 다른 꿈을 꾸는 왕과 승

당시 오악과 삼산의 신들이 때때로 내려와 경덕왕을 모셨다는 것은 그 산을 중심으로 웅거하고 있는 세력들이 왕이 다스리는 신라사회에 편입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특히 신라는 대대로 오악과 삼산의 주재신들에게 국가적 제사를 지내오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 오악과 삼산은 국가적 제사의 대상이자 전제왕권에 통합된 고유한 세력과 신앙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신라의 왕실에 있는 왕에게 직접 내려와 왕을 모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달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경덕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위 4년차에는 사정부(司正府)와 소년감전(少年監殿) 및 예궁전(穢宮典)을 설치하고, 16년차에는 주군현(州郡縣)의 명칭과 편제를 개편하였으며, 18년차에는 병부와 예부 등 내외직에 걸쳐 편제를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직 명칭을 모두 중국식으로 고쳐 전제정치를 공고히 하였다.

또 그는 표훈(表訓)과 신림(神琳)과 범해(法海) 등을 높이 받들어 그들로 대표되는 화엄계의 철학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경덕왕

신라 혼란기 경덕왕 때 지어진 향가

충담, 왕사 거절하며 백성아끼길 충언

왕이 행할 호법의 요체는 '만민 행복'

은 불국사와 석불사 조성 등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전제정치는 재위 4년 차에 중앙귀족인 중시(中侍) 유정(惟正, 1년)의 퇴직을 촉발하였고, 재위 7년차에는 경덕왕의 충신이었던 이순(李純)이 세속을 버리고 단속사(斷俗寺)를 창건하고 승려가 되었다. 재위 15년차에는 상대등 김사인(金思仁)이 시정(施政)의 득실을 호되게 따졌고, 연이어 시중(侍中) 김기와 염상(2년) 등의 퇴직까지 재촉시켰다. 재위 16년차에는 월봉(月俵)을 통해 귀족들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려던 월봉제를 폐하고 귀족들이 녹읍(祿邑)을 기반으로 다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녹읍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되자 재위 22년차에 왕이 놀기를 놓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단속사 승려가 된 이순은 궁문으로 나아가 격렬한 충간을 하였다. 하지만 경덕왕의 전제정치는 계속되었다. 재위 33년차에는 왕은 상대등 신충(信忠)과 시중 김웅(金兪)을 한꺼번에 면직시켰다.

이들에 뒤이어 시중에 오른 이가 바로 김양상(金良相)이다. 그는 뒷날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선덕왕(宣德王)이 되었다. 경덕왕은 귀족들과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반월성의 가장 바깥의 서쪽에 있는 귀정문으로 나아갔다. 왕은 전제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악과 삼산으로 대면되는 종래의 토착세력과 고유신앙과의 타협을 생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충담은 일찍이 자신이 존경하는 기파랑(耆婆郎)을 기리기 위해 「찬기파랑가」를 지었다. “열어 젖히며 벗어나는 달이/ 환구를 쫓아 떠가는 자리에/ 백사장 펼쳐진 물가에/ 기파랑이

통치 근본은 백성에 있음을 알려



경주 계림에 세워져 있는 찬기파랑가 비. 충담은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어 신라 혼란기에 위정자들이 청빈한 삶을 살 것과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기를 주문했다.

스며 있어라/ 일오전 자갈밭에서/ 낭의 지니신 마음 좃으려 하니/ 아아, 잣나무가지 높이/ 서리 모를 씩 씩한 모습이어.”

이 시에는 기파랑의 고결함에 대한 충담의 존경의 염이 깊이 배어 있다. 동시에 충담의 결곡한 마음 또한 투영되어 있다. 이따금씩 경덕왕은 신라 영토를 대표하는 오악 삼산의 신들과 만나고 있었다. 어느 해 가야의 영신제의(迎神祭儀)의 계속일(戒浴日)인 3월 3일 날에 왕은 귀정문 누각에 올라 신하들에게 「영복송」을 모셔오라고 했다. 그는 왜 영복송을 불러오라 했을까? 그리고 모셔온 「영복송」을 자신이 짓는 이가 아니라며 돌려보냈다. 그런 뒤에 지나가는 한 신님을 맞아들어 차를 대접받았다. 그런데

왕은 충담이 「찬기파랑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임금에 위한 헌가

충담이 지은 「안민가」는 이렇하다.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주는 어미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로 여기면/ 백성들이 사랑을 알리라.// 꾸물대며 [탄식하는] 시는 [못] 중생/ 이들을 먹여 다스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나라가 보전될 줄 알리라.//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충담은 「안민가」를 통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왕이 가상히 여겨 그를 왕사로 책봉하려고 했으나 충담은 거부하였

다. 「안민가」는 제목처럼 백성을 편안히 하는 노래이다. 안민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역시 강조하는 덕목이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호법과 호국을 강조해 왔다. 불법을 따르는 통치자는 불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호법’의 주체는 왕이며 ‘호국’의 주체는 교단이다. 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모든 국토에 거주하는 일체의 인민이다. 즉 왕은 국토와 인민의 수호에 본래 의무가 있으며 ‘호국’의 ‘국’ 역시 ‘국토 안에 사는 인민’을 뜻한다. 신라 당시 불교가 통치이념이었음을 감안하면 「안민가」를 불교적 안민호국(安民護國)사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유교적 법칙에 의해 다스려졌던 시대임을 감안하면 유교적 안민호국사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논어」 「안연」(顔淵)편의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 [君君, 臣臣, 民民]는 구절로 보면 유교적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교의 『금광명경』 「사천왕호국품」이나 『인왕경』 「호국품」은 모두 불법을 보호하는 왕들이 취해야 할 ‘호법’과 불자들이 나아가 할 ‘호국’에 대해 설하고 있어 불교적 해석도 가능하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경덕왕 대는 천재지변이 극심하였다. 특히 기름(4년, 6년, 13년)과 지진(2년, 24년), 우박(4년, 13년), 폭풍(8년), 태풍(22년), 낙뢰(6년, 17년), 혜성과 요성과 천구성 등 하늘세계의 혼란(3년, 7년, 18년, 20년, 23/23년, 24/24년), 흉년(6년, 14년), 귀신이 북치는 소리(19년) 등 갖은 변화가 생겨났다. 신라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였다. 또 “백성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를 버리고 신라를 벗어났다”고 일본의 서책에서 기록하고 있다. 경덕왕 이후에도 잦은 흉년이 들었으며 흥덕왕 대의 향덕(尙德)은 다리를 베어 부모를 봉양하였다고 전한다.

이처럼 충담의 「안민가」는 바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급선무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탄식하는 못 창생’ 들을 ‘먹여 다스리는 것’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라는 탄식을 잠재우고 ‘나라를 보존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하였다. 가족의 관계처럼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이며,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할 때 비로소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는 이 노래는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배불리고 등을 따뜻하게 하라고 외치고 있다. 쓸 데 없이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백성들을 옥사시키는 공역을 시설하지 말며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부터 하라고 말이다. 「안민가」는 나라를 보존하는 길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 [愛民]과 ‘백성을 안돈하는 일’ [安民]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부식, 「삼국사기」, 신원출판사, 1978; 2007; 2010.
- 일 연, 「삼국유사」, 권선로 역주, 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양주동, 「고기연구」(일조각, 1975).
- 김원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 이도훈,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 고영성,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 2012).
-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기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자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속됨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됨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됨(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함니다. 기능은 최저 가격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냉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택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